

파죽의 제주Utd “선두 수성 문제 없다”

지난 19일 부천FC 1995와 원정서 2-0 승리 최근 9경기 연속 무패·부천에겐 3연승 기록 승점 41점 확보하며 선두 자리 굳건히 수성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부천 FC 1995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선두를 질주했다.

제주는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원정경기에서 부천에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올 시즌 부천전 3연승 및 최근 9경기 연속 무패(6승 3무)를 기록한 제주는 승점 41점을 확보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수원(36점)과는 5점 차이다.

이날 경기서 제주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공민현, 주민규, 이동철이 스트라이크로 나섰다. 정우재, 이창민, 김영육, 안현범이 측면과 2선

에서 지원에 나섰다. 스리백은 정운, 권한진, 김오규가 손발을 맞췄고 골문은 오승훈이 지켰다.

제주는 전반 8분 만에 주민규가 페널티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안현범에게 패스를 내주며 선제골을 건넸다. 안현범의 2경기 연속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전반 13분 추가골이 터졌다. 이번에는 주민규가 직접 부천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 틈을 타 득점에 성공했다. 최근 4경기 연속골이다.

승기를 잡은 제주는 계속 부천을 압박했다. 제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창민과 정운을 빼고 강윤성과 김경재를 교체 투입했다. 부천의 반격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부천과의 원정경기에서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제주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추가 득점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후반 31분에는 이동철과 류승우를 맞바꾸며 더욱 화력의 세기를 더했

다. 경기 막판 추가골이 터지는 듯 했지만 VAR 결과 아쉽게도 무효 처리됐다. 하지만 승수쌍이기는 2골이면 충분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함께 웃지 못한 류현진-김광현 25일 올 시즌 동반 승리 노리나

마지막 동반 선발 등판 가능성 15년 만 한국 출신 선발승 도전

이번에도 함께 웃지 못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이야기다.

두 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나란히 선발 등판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류현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타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6이닝 2자책점으로 호투하고도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서 5⅓이닝 4자책점을 허락하며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김광현이 마운드를 내려간 7회에 폭발하며 경기를 뒤집어 아쉬움을 남겼다.

두 선수는 올 시즌 새로운 환경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류현진은 새로이적한 토론토의 에이스로,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유독 동반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달 18일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선발 등판했다.

당시 류현진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6이닝 동안 1자책점으로 활약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반면 김광현은 시카고 컵스전에서 3⅓이닝 동안 1실점 한 뒤 마운드로 내려왔다.

김광현도 4일 휴식 후인 25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등판이 유력하다. 두 선수가 올 시즌 마지막 정규시즌 선발 등판 경기이자 동반 등판 경기에서 나란히 웃음 지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류현진(왼쪽)과 김광현.

김광현은 해당 경기 선발 데뷔전이었는데, 보직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투구 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두 선수는 같은달 23일 다시 동반 등판해 나란히 호투했는데, 이번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제 두 선수는 올 시즌 각각 차례씩 선발 등판 기회를 남기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날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류현진은 소속팀이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첫 경기인 30일 등판 일정에 맞추기 위해선 25일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도 4일 휴식 후인 25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등판이 유력하다.

두 선수가 올 시즌 마지막 정규시즌 선발 등판 경기이자 동반 등판 경기에서 나란히 웃음 지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양희영, LPGA 첫 승 기회 공동 3위... 선두와 3타차

양희영(31)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우승 기회를 잡았다.

양희영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킴벌리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 2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기록한 양희영은 3타를 줄였던 1라운드보다 12계단을 끌어 올려 단독 3위로 올라섰다.

단독 선두 멜 리드(잉글랜드)와는 3타 차다. 리드는 이날 버디 7개로 7타를 줄여내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선두로 올라섰다.

양희영은 전반에서 버디 4개를 잡고 후반 들어에서도 버디 3개를 추가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다만 14·15번 홀(이상 파4) 연속 버디 후 16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낸 것이 아쉬웠다.

양희영은 지난해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통산 4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지 1년 7개월 만에 통산 5승을 기대하게 됐다.

2013년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9월말 2사 끝내기 안타 치는 두산 박세혁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월말 2사 두산 박세혁이 끝내기 적시타를 치고 있다.

피인심, 2015·2017·2019년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정상에 오른 양희영이 짝수 해에,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우승한 적은 아직 없다.

'디펜딩 챔피언' 해나 그린(호주)이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단독 2위를 달리고 있고, 에이미 울슨(미국)이 양희영과 나란히 공동 3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재미교포 노예림(19)은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있다.

최운정(30)은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단독 9위에 있다.

박인비(32)와 이정은(32)은 공동 21위(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를

기록 중이다. 지난주 메이저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이미림(30)은 이날 1타 없이 공동 56위(중간합계 1언더파 143타)로 주춤했다.

합계 4오버파를 친 박성현(27)과 2오버파에 그친 전인지(26)는 컷(이븐파) 통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LG 조성원 감독 첫 경기부터 99점 폭발

"선수들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오늘 타임아웃을 초반에 한 번밖에 안 넣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조성원(49)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첫 경기를 산뜻한 승리로 장식했다.

LG는 20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MG새마을금고 KBL컵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울산 현대모토스기를 99-93으로 꺾었다.

조성원 감독은 올해 4월 LG 사령탑에 취임한 이후 '공격 농구'를 표방했다.

수비와 리바운드를 강조하는 최근

흐름보다는 팬들이 신나서 볼 수 있는 '공격 농구'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조성원 감독이 LG에서 선수로 뛰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던 2000-2001시즌 당시 조 감독은 국내 선수 득점 1위(25.7점), 경기당 3점슛 3.84개 등 엄청난 활약을 자랑했다.

자신의 현역 시절처럼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를 기치로 내세운 조성원 감독은 이날 공식 경기 데뷔전부터 99점을 폭발하며 산뜻한 첫걸음을 뒀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Rows contain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able with 2 columns: 오늘의 운세 (Today's Fortune) and 21일 (September 21st). Rows contain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